

잡아함80. 법인경

날짜: 3월 13th, 2024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676>

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.

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.

“거룩한 법인(法印)과 정확하고 청정한 견해를 설명하리니,
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. 만일 어떤 비구가 ‘나는 공삼매(空三昧)
에서 아직 얻은 바가 없지만, 모양 없음[無相]과 가진 바
없음[無所有]과 아만을 떠난 지견[離慢知見]을 일으킨다’고
말한다면,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.

왜냐하면 만일 공(空)에서 얻은 바가 없으면서 ‘나는 모양 없
음과 가진 바 없음과 아만을 떠난 지견을 얻었다’고 말한다면,
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.

만일 어떤 비구가 ‘나는 공을 얻어 능히 모양 없음과 가진 바
없음과 아만을 떠난 지견을 일으킨다’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
은 말이다. 왜냐하면 만일 공을 얻은 뒤에 능히 모양 없음과
가진 바가 없음과 아만을 떠난 지견을 일으켰다면 그것은 옳
기 때문이다.

비구들아, 거룩한 제자와 정확하고 청정한 견해란 무엇인
가 ? ”

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.

“부처님께서는 법의 근본이요, 법의 눈이며, 법의 의지처이십

니다. 원하옵건대 말씀해 주소서. 모든 비구들은 그 설법을 들은 뒤에 그 말씀대로 받들어 행하겠습니다.”

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.

“만일 비구가 공적하고 한가한 곳이나 나무 밑에 앉아 ‘색은 무상하고, 소멸되며, 그것에 대한 탐욕을 떠나야 할 법이다’라고 관찰하고, 이와 같이 ‘수 · 상 · 행 · 식도 무상하고, 소멸되며, 그것에 대한 탐욕을 떠나야 할 법이다’라고 관찰한다고 하자.

‘그 음(陰)이란 무상하고, 소멸되며, 견고하지 않고,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’라고 관찰하여 그 마음이 즐겁고, 청정하며, 해탈하면 이것을 공(空)이라 하느니라. 그러나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도 아직은 아만을 떠나 지견이 청정해지지는 못하였느니라.

다시 바르게 사유하는 삼매[正思惟三昧]가 있어서 색의 모양이 끊어지고, 소리 · 냄새 · 맛 · 감촉 · 법의 모양이 끊어지는 것을 관찰하나니, 이것을 모양 없음[無相]이라 한다. 그러나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도 아직은 아만을 떠나 지견이 청정해지지는 못하였느니라.

다시 바르게 사유하는 삼매가 있어서 탐하는 모양이 끊어지고, 성내고 어리석은 모양이 끊어지는 것을 관찰하나니, 이것을 가진 바 없음[無所有]이라 한다. 그러나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도 아직은 아만을 떠나 지견이 청정해지지는 못하였느니라.

다시 바르게 사유하는 삼매가 있어서 ‘나[我]와 내 것[我所]은 무엇으로부터 생기는가’고 관찰하고, 다시 바르게 사유하는 삼매가 있어서 ‘나와 내 것은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접촉하거나 혹은 인식하는 데서 생긴다’고 관찰하며, 다

시 ‘인(因)이나 연(緣)이 있어서 식(識)이 생길 때, 그 식의 인과 연은 항상한가, 무상한가’고 관찰한다.

다시 ‘인이나 연이 있어서 식이 생길 때, 그 인(因)과 연(緣)은 다 무상한 것이다. 또 그 인과 연이 다 무상한 것인데 거기서 생긴 식이 어떻게 항상하겠는가? 무상한 것은 곧 유위행(有爲行)이다.

인연을 따라 일어난 것은 곧 근심스러운 법이요, 소멸시켜야 할 법이며, 탐욕을 떠나야 할 법이요, 을 끊어야 할 법이다’고 사유하나니, 이것을 거룩한 법인과 지견의 청정함이라 한다. 이것이 ‘비구들아, 거룩한 법인과 지견의 청정함을 설명하리라’고 한 것으로서,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였느니라.”

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,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.

본 문서는 dhamma.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.